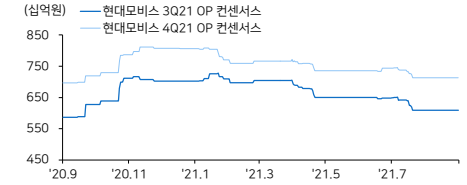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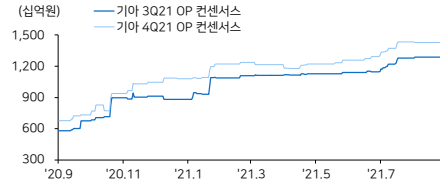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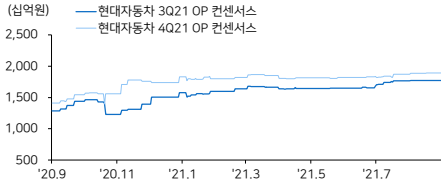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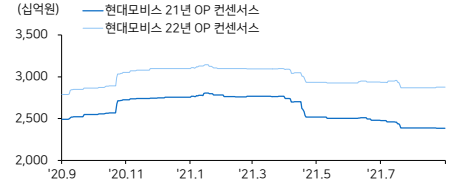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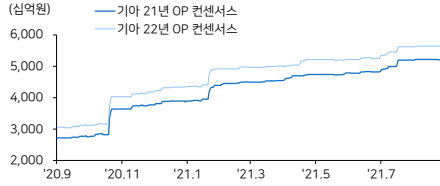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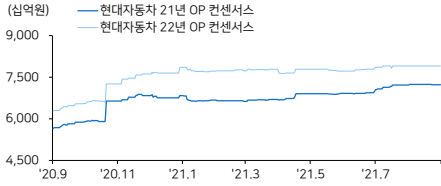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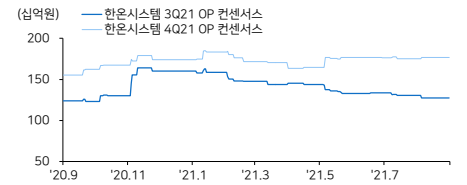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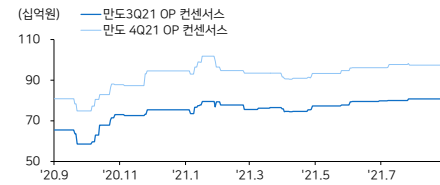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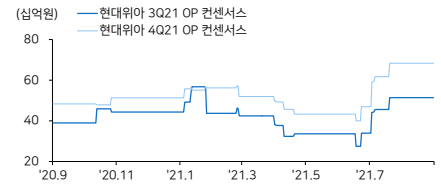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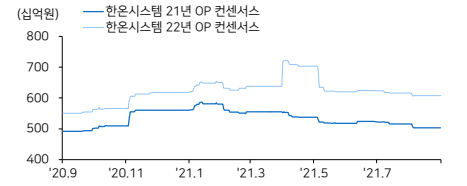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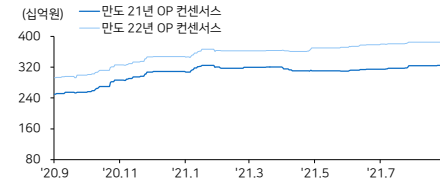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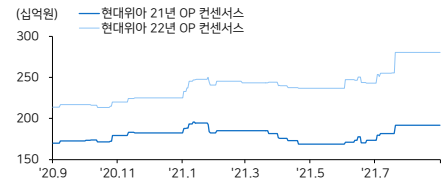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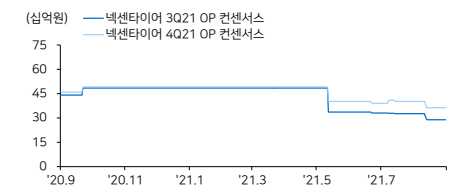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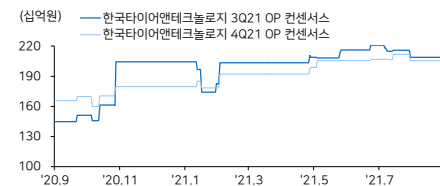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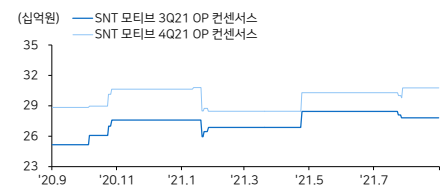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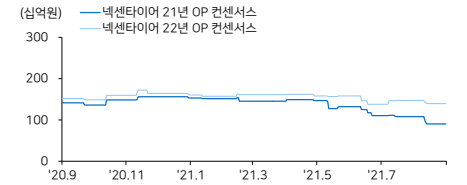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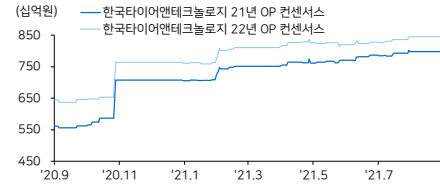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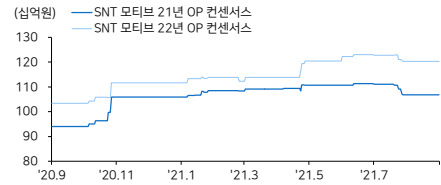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상반기만 8000억 투자...모빌리티 솔루션기업 도약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가 올해 상반기에만 8000억원이 넘는 신규 투자를 집행. 투자 분야는 수소, UAM, 배터리까지 그룹이 미래 신사업으로 지목한 핵심분야에 집중.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색갈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
<https://bit.ly/3A3JFQV>

자율주행 아이오닉5 로보택시 공개...탄소도 교통체증도 없앤다 (파이낸셜뉴스)

현대차는 'IAA 모빌리티 2021'에서 아이오닉5를 기반으로 모셔널과 공동 개발한 로보택시 실물을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함. 아이오닉5 로보택시는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을 인증받음.
<https://bit.ly/3yNqKlr>

자동차값 더 오르나...글로벌 후회사들 "반도체 부족 계속된다" (연합뉴스)

VW CEO 디스는 밀레시아에 신종 COVID19 재유행으로 인한 차량용반도체 수급자질에 '큰 우려'라고 언급함. 포드 유럽이사회와장 SED가 공급하여 주행보조시스템은 만도, 시트 소재는 대원산업, 와이어링 하네스는 예코기업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bit.ly/3yJfFoc>

'테슬라 대항마' 리비안, 한국에도 상용 등록 마쳐 (조선비즈)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Rivian)이 국내 상용권을 등록하면서 한국 진출 가능성이 점쳐짐. 리비안의 고전압 배터리는 삼성SDI가 공급하며 주행보조시스템은 만도, 시트 소재는 대원산업, 와이어링 하네스는 예코기업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bit.ly/3tkGW2D>

현대위아, 러시아 엔진공장 상업생산 초읽기...준공 검사 통과 (THE GURU)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주 건설감독청은 지난 2일 현대위아 엔진공장이 준공검사를 통과했다고 밝힘. 현대위아의 유럽 첫 생산기지로 현재 1600cc 가솔린 엔진 24만대 생산 규모를 보류, 향후 30만대까지 확장할 계획.
<https://bit.ly/3jMARZF>

신차도 중고차도... 인기 식지 않는 하이브리드 (조선비즈)

8월 등록된 신차 중 하이브리드 차량은 YoY +44.1% 증가하고, 신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점유율이 11.3%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누리는 중. 이에 현대차그룹은 경유차 중심이던 SUV에 하이브리드 적용을 확대 중.
<https://bit.ly/2X0RbUr>

폭스바겐, 2025년 독일서 로보택시 사업 시동 (이투데이)

VW CEO 디스는 '35년 내연기관 차량 사업이 끝날' 위기에 직면한 유럽 자동차 산업에서 실질적 게임체인저는 전기차가 아닌 자율주행이 될 것이라고 언급. Argo AI와 공동 개발한 로보택시 ID버전 100대를 투입해 로보택시 사업 진입 계획.
<https://bit.ly/3jMC57d>

애플, 벤츠 엔지니어 2명 채용...애플카 '정종동' 행보 (THE GURU)

애플이 애플카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전 벤츠 엔지니어 2명을 영입함. 이중 '안톤 유슬만'은 벤츠와 포르쉐에서 주요 SW 개발과제를 담당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 애플카의 실제 양산에 힘을 보탬 것으로 전망됨.
<https://bit.ly/3tgTgPv>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